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캄보디아

Kingdom of Cambodia

2023년 10월 23일 | 조사역(G3) 김성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81천 km <sup>2</sup> 	<b>인구</b> 1,615만 명 (2023 <sup>f</sup> ) 	<b>정치체제</b> 입헌군주제 	<b>대외정책</b> 친중국 외교 
<b>GDP</b> 309.4억 달러 (2023 <sup>f</sup> ) 	<b>1인당GDP</b> 1,916달러 (2023 <sup>f</sup> ) 	<b>통화단위</b> Riel 	<b>환율(\$기준)</b> 4,113.5 (2023 <sup>f</sup> ) 

-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접경하고 있으며, 1953년 11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입헌군주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국왕이 국가원수이나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 중임.
- 대표적 산업인 봉제 산업과 관광업을 바탕으로 2011~19년 간 연평균 7%대 경제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5년 기준 1인당 GNI가 1,070달러를 기록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분류 상 저중소득국에 편입되며 농업 중심의 최빈국 지위에서 벗어났음.
-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였으며, 경제 규모 대비 안정적인 수준의 외채 비중을 유지 중임.
- 한편, 2023년 7월 총선에서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하원 125석 전석을 사실상 차지한 이후 현재까지 집권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며 중국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강대국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는 유연한 외교관계를 표방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7. 10. 30 외교관계 재개 (북한과는 1964. 2. 28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1964), 투자보장협정(1997), 경제기술협력협정(1997), 항공운수협정(2001), 문화협력협정(2006),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06), 범죄인인도협정(2011)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 출	567,210	623,848	641,675	자동차, 직물, 기계, 의약품
수 입	318,112	341,516	408,879	의류, 산업용 전기기기, 잡화, 알루미늄

**해외직접투자 현황(2023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996건, 5,111,742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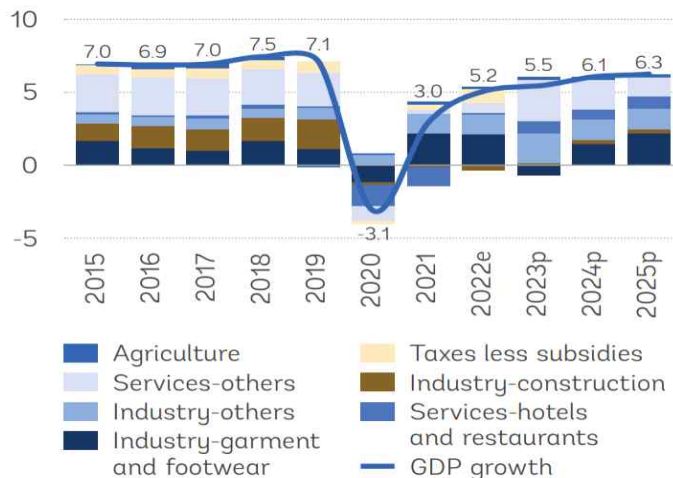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sup>f</sup>
경제성장률	7.1	-3.1	3.0	5.2	5.6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9	2.9	5.3	2.0
재정수지/GDP	3.0	-3.4	-7.1	-0.9	-4.5

자료: IMF, EIU

###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이후 2023~25년 간 5~6%대의 경제성장 전망

- 봉제산업과 관광업을 바탕으로 2011~19년 간 연평균 7%대의 높은 성장을 지속했던 캄보디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여파로 생산과 소비가 동반 위축되어 -3.1%의 역성장에 그쳤음. 2021년 하반기 시작된 "Living with COVID-19" 정책과 함께 팬데믹 이전의 경제성장 궤도에 올라서며 그간 수출과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업, 농업 부문의 성장과 관광업의 회복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발효된 한국 및 중국과의 FTA,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등으로 농업 부문이 더욱 발전할 전망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쌀, 카사바, 고무, 망고, 바나나 등의 수출이 증대되었음. 특히 바나나 수출액은 2019년 49.3백만 달러에서 2022년에 1억 8천 2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였음.
- 반면 세계적 경기 침체로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감소하고, 2022년 하반기 들어 수출 수주가 약세를 보이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도 나타남. 이처럼 새로운 경기하방 압력 요인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경제는 관광 부문의 지속적인 회복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6%대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2015~25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및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세계은행 캄보디아 경제 보고서 업데이트(2023.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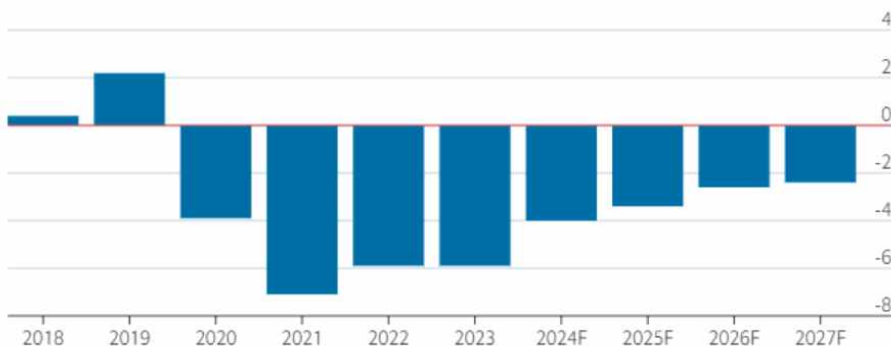
## 국내경제

###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 및 세법 개정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 전망

- 캄보디아 국세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중의 세수 및 관세 수입은 금년도 목표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광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선전과 경제활동의 회복 등 경제 정상화를 보여줌.
- 그러나 캄보디아의 2023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4.5%에 해당하는 13.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IMF). 이는 2022년 GDP 대비 0.9% 적자보다 큰 규모로, 정부는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과 해외자금 조달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이 집계한 1분기 조세수입 13억 달러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금액으로 2023년 연간 목표액의 37.6%를 차지하였음. 반면 관세청이 집계한 1분기 관세수입은 국제무역 활동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한 5억 6천 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연간 목표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미국, 유럽 등 주요 무역 파트너로부터의 수입 감소에 따른 결과임.
- 2023년 8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조세수입은 목표액(35.72억 달러)의 107.5%에 달할 것이며, 1~7월 간의 조세수입은 약 23억 달러로 목표액의 65%에 해당함.
- 캄보디아 정부는 2022년 9월 3억 달러 규모의 첫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캄보디아 공적외채의 42.7%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용이함. 또한 일본으로부터 양자간 지원을, ADB로부터 다자간 대출을 받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짐.
- 2023년 5월 22일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었음. 세금 징수 개선과 미래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 표준 준수에 관한 이 법안을 통해 앞으로의 재정 강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조세 규칙을 간소화시키는 이 법안은 기존의 세금 징수의 허점을 줄여 세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간소화된 규칙은 세금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외국인투자 유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여짐.
- 법인세는 캄보디아 세금 수입의 78%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으로, 새로운 세법의 시행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늘어난 재정적자를 개선하여 공공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캄보디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전망(%)

The new taxation law supports Cambodia's fiscal consolidation outlook  
(fiscal deficit; % of GDP)



Sources: Haver Analytics; EIU.

자료: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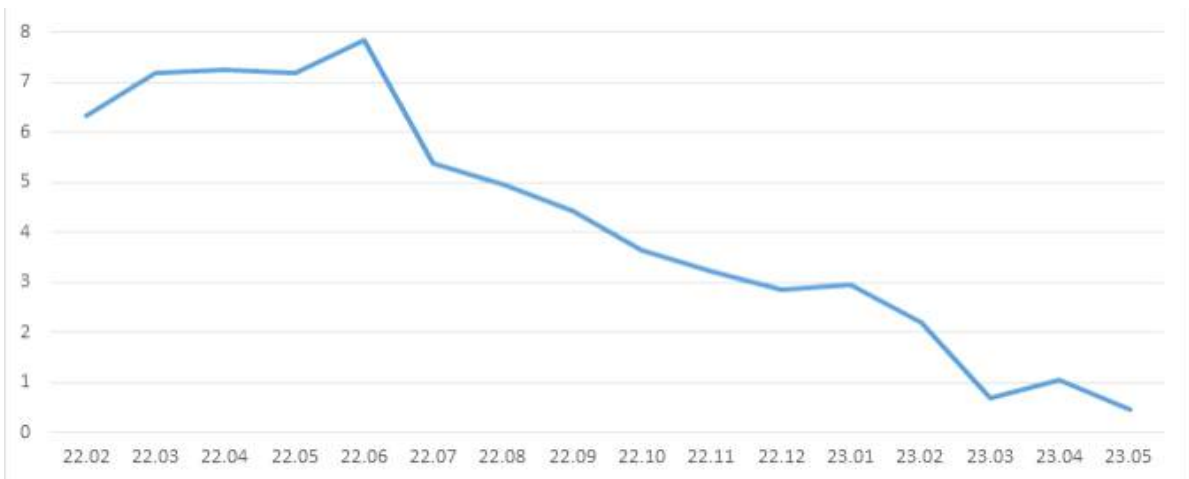
## 국내경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6월 최고점을 찍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중

-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식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2022년 6월 캄보디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년 만에 최고점인 7.85%를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식품, 교통 등 가격 인상이 점차 완화되어 2023년은 2~3%(2023년 물가상승률 예측은 IMF 2.0%, IHS Markit 3.6%, Fitch Solutions 2.2%)의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3월 대중교통 요금은 전년 대비 6% 하락하여 2021년 2월 이후 첫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주택 및 주거비용은 3% 하락하였음. 육류, 과일 채소 등 식품 가격은 2.4%를 기록하여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표 1] 캄보디아 전년 대비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2.02	'22.04	'22.06	'22.08	'22.10	'22.12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CPI(%)	6.33	7.25	7.85	4.94	3.64	2.86	2.96	2.20	0.70	1.07	0.48	0.07



자료: 캄보디아 중앙은행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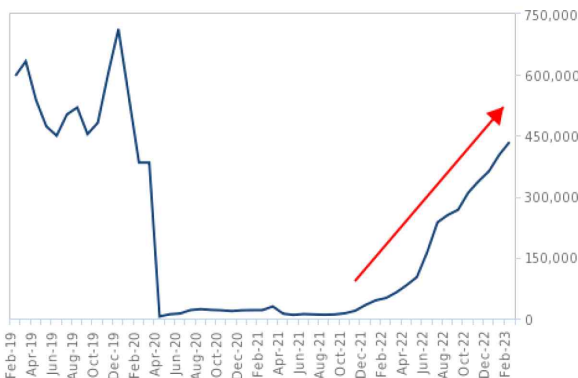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 상 수 지	-2,931	-881	-10,893	-7,581	-5,075
경상수지/GDP	-10.8	-3.4	-40.9	-26.3	-16.4
상 품 수 지	-7,255	-2,544	-11,205	-8,826	-8,262
상 품 수 출	14,986	18,522	19,521	23,179	24,435
상 품 수 입	22,242	21,066	30,726	32,005	32,697
외 환 보 유 액	16,880	18,404	16,928	14,368	16,011
총 외 채	15,329	17,569	20,020	20,828	21,680
총외채잔액/GDP	56.6	68.2	75.3	72.3	70.1
D.S.R.	6.4	7.1	10.3	7.6	5.2

자료: IMF, EIU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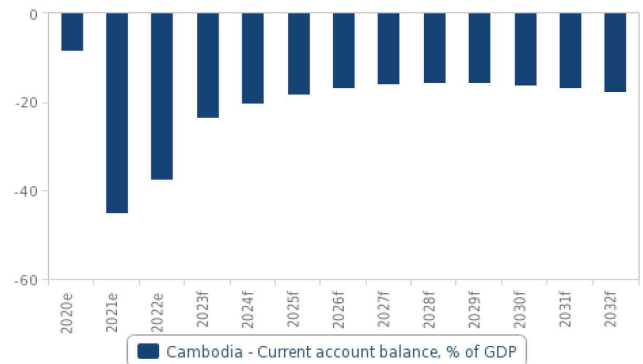
- 2021년 금 수입 증가와 관광업의 부진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40.9%까지 치솟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로 동 비율은 2022년 26.3%에서 2023년 16.4%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023년 상반기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257만 명으로 전년 50만 6천 여명 대비 409%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Fitch Solutions는 관광업의 회복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긴 했지만, 캄보디아의 투자 기반 확대 정책으로 인한 수입 자본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상품수출 감소의 결합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3] 캄보디아 외국인 방문객 수(명)



자료: Fitch Solutions

[그림 4] GDP 대비 캄보디아 경상수지 적자 비율(%)



## 대외거래

###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EU로의 수출 감소, LDC 지위 상실에 따른 대비 필요

-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은 의류, 신발, 자전거, 여행용품 등으로 상품수출액의 38.4%가 미국, 23.9%가 유럽으로의 수출로 집계(2022년 기준 UNCTADstat)될 만큼 서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유럽의 긴축재정 및 수요 감소 등으로 2023년 3분기부터 시작된 수출증가 둔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품목과 수출상대국 다각화 노력이 필수적임.
- 캄보디아는 최빈개도국(LDC)으로 분류되어 미국 및 유럽으로의 수출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무역 특혜를 통해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여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되어왔음. 향후 LDC 지위를 졸업하면 무관세 무역 특혜 등이 사라져 한국·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 수출 품목 다각화 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캄보디아는 2021년 LDC 지위 졸업 자격이 확인된 후 2024년 재평가에서 동일한 기준이 충족된다면 2027년에 LDC 지위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8월 유럽은 캄보디아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캄보디아산 일부 상품에 대한 EBA (Everything but Arms, 무기를 제외한 모든 대EU 수출제품 무관세 특혜) 적용을 철회하였음. 또한 비슷한 시기에 캄보디아는 같은 이유로 미국의 GSP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었으며, 2023년 8월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와의 회의에서 GSP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음.
- 캄보디아는 그동안 의류, 신발 등 면화제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류, 가죽제품, 신발의 3개 품목이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84.0%에서 2022년 57.2%로 현저히 감소하였음.

[표 2]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품목(백만 달러)

품명	2014	2016	2018	2020	2022
편직물 의류	5,076.7	6,057.3	6,586.2	5,188.1	6,367.0
편직물 제외 의류	243.2	514.9	1,241.1	2,296.8	2,668.3
전자기기	53.0	430.8	511.5	762.1	1,998.2
가죽제품	37.0	149.7	571.6	1,008.8	1,860.5
신발	418.6	774.3	1,040.4	1,123.1	1,737.1



자료: ITC Trade Map



## 외채상환능력

### 양허성 차관이 외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외채상환위험은 낮은 수준

- 캄보디아의 외채는 양허성 차관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외채상환위험 발생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총외채잔액은 2025년까지 소폭 증가하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비율은 2021년 75.3%에서 2022년 72.3%, 2023년에는 70%로 낮아지고 있음.
- 한편, 2021년 말 기준 캄보디아 외채의 약 42.7%를 중국이 차지하여,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채권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캄보디아 내 수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IMF 외채상환가능성보고서(DSA)상의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단기간에만 적용되며 코로나19와 같은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것으로 IMF는 캄보디아의 외채상환위험을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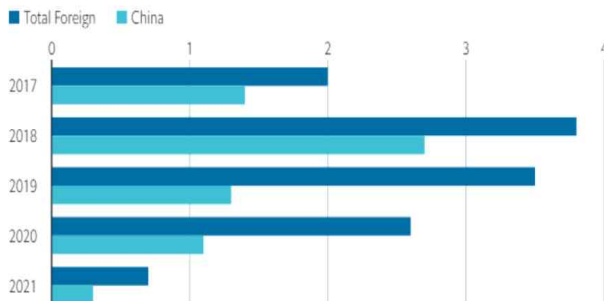
## 구조적취약성

###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정치적 의존

-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은 최근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중국은 2022년 캄보디아 내 외국인투자의 79%, 2023년 1분기 기준 캄보디아 공공외채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캄보디아의 단일 수출상대국 중 미국과 베트남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며, 최근 FTA 체결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흐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캄보디아의 경제적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으로부터의 고정자산 투자는 2021년에 전년 대비 67%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은 2012~17년 간 캄보디아에 주로 에너지 분야에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음. 캄보디아 광업에너지부 대변인은 자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의 65.7%를 중국 자본이 투자한 에너지 프로젝트가 차지했다고 밝혔음
- 이외에도 40억 달러 규모의 프놈펜-포이펏 철도 현대화, 20억 달러 규모의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도로, 공항, 항만 건설, 캄보디아의 통신 회사 ZTE와의 5G 통신 파트너십 체결, 중국 기업 알리바바의 메콩 지역 물류 허브화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며 큰 규모의 중국 투자 유입이 전망됨.
- 2023년 7월 총선에서 승리한 훈센 총리는 총리직을 사임한 뒤, 새로운 총리로 장남인 훈마넷이 임명되었음. 이후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중국과 밀착관계를 유지하여 정치적 안정성을 지속하는 등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국은 캄보디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문제에 있어 서방 국가의 비난으로부터 훈센 정부를 옹호해왔으며,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중국과의 첫 합동 해군 훈련(골든 드래곤 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그림 5] 중국이 캄보디아 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2017~21년)

China accounts for a large share of Cambodia's foreign investment  
(fixed assets investment projects approved, US\$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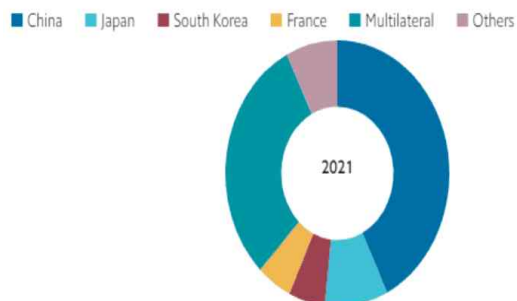


Sources: Haver Analytics; EIU.

자료: EIU

[그림 6] 채권국별 캄보디아 공적외채 비중(2021년)

China accounts for the highest share of Cambodia's public external debt  
(public external debt stock; % of total)



Source: Cambodia Public Debt Statistical Bulletin

## 성장잠재력

### 과학·기술 발전 지원을 통한 디지털 사회 및 경제로의 가속화

- 캄보디아는 '2022-2035 캄보디아 디지털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경제총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 2023년 3월 처음 개최된 캄보디아 국제 과학·기술 및 혁신 엑스포를 통해 2021-2035 캄보디아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정책 프레임워크 정책과 로드맵과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보여 주었으며, 앞으로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6월 발표된 법령을 통해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디지털 경제총국은 디지털 관리 및 개발의 효과와 효율성 보장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정책, 전략, 계획, 프로그램을 계획 및 실행하고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캄보디아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디지털화의 가속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 중앙은행의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간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바콩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결제 확대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업자 등록 포털 출시 등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캄보디아 인터넷 사용자 수가 2016년 800만 명에서 2022년 1,800만 명으로 증가하며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했음. statista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7년 2억 9천만 달러에서 2023년 9억 8천만 달러로 급성장했으며, 2027년에는 15억 5천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캄보디아 정부는 온라인 사업자 등록 플랫폼을 2020년 6월 처음 출시하였으며, 2023년 7월 12개 부처 및 기관의 면허, 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관련 서류 발급 서비스를 한데 통합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교통, 전력, 통신 등 부족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로 국가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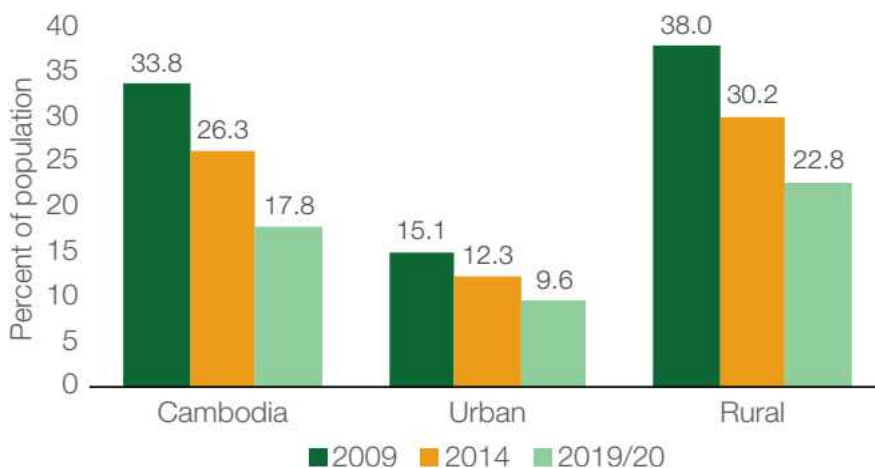
- 캄보디아는 교통, 전력 등 부족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 있음. 고속도로·신공항 건설 및 전력 시설, 통신 시스템, 해저 케이블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관광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총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된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도로는 수도인 프놈펜과 국제 심해항구가 있는 프레아 시아누크 주를 연결하는 187km 길이의 고속도로로 2022년 10월 개통되었음.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 3천 대를 넘어섰으며, 교통의 편리성은 물론 관광을 촉진하여 경제발전 가속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캄보디아 정부는 밝혔음.
- 에너지 인프라 개발 투자 증가에 따라 캄보디아의 에너지 공급량은 2008년 490MW에서 2022년 4,495MW로 지난 15년 간 9배 이상 증가하였음. 정부의 2022~2040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신규 발전소 건설과 국가 전력망 확대를 위해 발전송, 배전망 정비에 약 90억 달러의 투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관측됨.

## 정책성과

### 세계은행,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의 평가 향상

- 세계은행은 2022년도 캄보디아 빈곤 실태 평가(2009~19년 기준)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가 최근 10년 동안 빈곤 문제 해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음. 동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제는 최근 10년 간 GDP는 연평균 7%, 1인당 GDP도 연평균 5.4%대의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빈곤율은 2009년 33.8%에서 2019년 17.8%로 절반 가까이 크게 감소하였음.
- 전체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감소하였음.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고 전력에 대한 접근성은 2009년 26%에서 2019년 86%로 3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2009~19년, 44%→74%), 위생에 대한 접근(2009~19년, 35%→83%) 등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
-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3년 2월 집중 모니터링 대상국을 뜻하는 그레이 리스트에서 캄보디아를 제외한다고 밝혔음. 캄보디아는 자금세탁 방지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9년부터 그레이 리스트에 등재되었으나,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노력을 이행했음을 확인하고 평가받기 위해 2023년 1월 FATF 평가단을 초청한 바 있음.
- 캄보디아는 돈세탁 방지 국제협력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 금융기관(FI, Financial Institution) 및 특정 비금융사업자(DNFBP,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 대상 감독, 금융정보분석기구(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개선, 자금세탁 등에 관한 조사 및 기소의 확대, 확산금융(PF, Proliferation Financing) 방지를 위한 정밀금융제재(TFS, Targeted Financial Sanction)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상당한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 7] 2009~20년 캄보디아 인구별/지역별 빈곤율 변화(%)



자료: World Bank Cambodia Poverty Assessment('22.11.)

## 정치안정

### 훈센 총리, 38년 간의 장기 집권을 마무리하며 장남인 훈마넛에 권력 이양

- 훈센 전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국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이 2023년 7월 23일 진행된 제7대 총선에서 전체 125석 중 120석(나머지 5석은 친정부 성향 정당 FUNCINPEC)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훈센 전 총리는 1985년 이후 38년째 집권하며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였음.
- 총선 승리 직후 훈센 전 총리는 자신이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후계자로 자신의 장남이자 이번 총선 프놈펜 선거구에서 당선된 훈마넛이 새 총리에 임명될 것이라 밝혔으며, 2023년 8월 7일 캄보디아 국왕은 훈마넛을 차기 총리로 지명하여 권력 이양이 완료되었음.
- 훈센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CPP를 지배할 것이며, 2024년 상원 선거를 통해 상원의장이 되어 훈마넛의 총리직 수행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짐. 이에 따라 어떤 주요한 정책 변화나 정치적 불안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11월 캄보디아 법원은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정부 전복을 꾀했다며 CNRP에 해산을 선고하고, 유력 야당 정치인인 켄 소카 CNRP 대표에 반역 혐의로 27년형을 선고하였음. 또한 이번 총선에 앞서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참가에 필요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제1야당인 촛불당(CP)의 선거 참여를 금지하는 등 주요 야당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합법성에 의문을 받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비난을 받고 있음.
- 제7대 총선에는 훈마넛 뿐 아니라 훈센 전 총리의 3남 훈마니를 포함해 부총리 겸 내무장관, 상원의장 자녀 등 정부 각료의 많은 자녀 및 친인척이 출마해 당선이 되었음. 또한 중앙은행 총재 체아 첸토 역시 그의 자녀인 체아 세레이로 교체되는 등, 지배 엘리트 계층의 대대적인 세대 승계가 이루어지며 젊은 지도부로 변화하고 있음.

###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지수는 정치 참여 점수 상승으로 134위에서 121위로 상승

- 캄보디아는 EIU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전년도 2.9점으로 167개국 중 134위를 기록하였으나, 올해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총점 3.18점을 받으며 167개국 중 121위로 전년 대비 향상된 평가를 받았음. 다만, 캄보디아는 여전히 베트남, 북한, 라오스 등과 함께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국가 중 하나임.
- 캄보디아는 '정치 참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점수가 향상되었는데, 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80% 내외의 높은 투표율과 국민들의 관심 증가를 반영한 점수임.
- 캄보디아는 CPP에 의해 지배되는 사실상 1당 체제 국가로, 총리이자 CPP의 수장인 훈센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수십년 동안 정부, 사법부, 군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이로 인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당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반영하여 '정부의 기능' 점수는 작년 3.93점에서 3.21점으로 하락하였음.
- 선거 과정의 불공정함을 반영하여 '선거 과정' 점수는 0점을 기록하는 등 현재의 취약한 제도적 구조와 야당의 부재로 인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짐.

## 사회안정

### 베트남 드론의 영공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대로의 군병력 전개

- 2023년 6월 훈센 전 총리는 500명의 군병력과 200대의 대공 무기 시스템을 베트남 접경지대로 이동시켜 드론 격추를 명령했음. 베트남 정부는 해당 드론 개입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국 내 반란 세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 EIU는 캄보디아의 7월 총선을 앞둔 훈센 전 총리가 자신의 '스트롱 맨'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보여준 의도적 행위로 추측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군과 베트남 내 반란군 간 전투로 인해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지역 일대의 안보에 대한 위험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짐.
- 1주일 넘게 목격된 드론은 6월 중순 캄보디아 국경 건너편에 위치한 베트남 중부 닥락 지역의 경찰서를 공격하였으며, 해당 공격으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해당 공격은 베트남 소수민족 단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당국은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연루된 84명을 기소하였으며, 관련 정보를 캄보디아 정부와 공유하며 상황은 일단락되었음.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는 캄보디아가 높은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대해 노출되어 있는 점과 전반적으로 약한 지배구조,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캄보디아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의 ESG 신용영향점수는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됨. 2022년 9월 Moody's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ESG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대한민국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농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관광업에 악영향을 주는 홍수나 가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주요 산업인 농업과 관광업이 잦은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농촌 등 저개발 지역에서는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물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등 기후·자연 관련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환경 영향은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사회) 젊은 층이 풍부한 인구구조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낮으며 의료 및 교육 서비스가 부족하고, 다른 기본적 사회 인프라도 부족해 인적자원 개발에 제약이 있어 사회 영향은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제도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부패가 여전히 만연한 점, 법의 역할이 약하고 투명성 문제로 인한 낮은 정책효율성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 영향은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됨.

## 국제관계

### 합동 해군훈련 등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 악화

- 중국은 40억 달러 규모의 프놈펜-포이펏 철도 현대화 사업을 승인하며 2023년에도 지속적인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재확인하였음. 중국은 최근 몇년 간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선거와 관련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문제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점, 훈센 전 총리에서 장남인 훈마넛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성 유지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캄보디아는 앞으로도 중국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미국과의 관계는 2016~18년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강제 해산, CNRP 대표 구금 및 2023년 총선에서의 제1야당의 선거 자격 박탈 등 민주주의의 후퇴로 인해 악화되었음. 미국은 2018년부터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밀착관계에 주목하며, 특히 중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인도양으로 전개할 수 있는 캄보디아의 림 해군 기지를 사용하는 비밀협약(캄보디아는 협약 체결을 부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여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음.
- 중국이 비밀리에 캄보디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의혹을 캄보디아 정부가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2023년 3월 캄보디아 림 해군기지 인근 해역에서 중국과의 합동 해군훈련인 '2023 골든 드래곤'이 실시되었음.
- 캄보디아는 2023년 9월 예정되어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남중국해에서의 ASEAN 첫 합동 군사훈련 참가를 거부하였으며, 동남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호주·영국·미국 삼각동맹인 오키우스(AUKUS)를 군비 경쟁의 시작이라 비판하였음.

### RCEP, 한국·중국과의 FTA 체결 등 새로운 국가들과 협력관계 모색

- 캄보디아는 2019년 인권 문제로 인해 최대 수출시장인 EU와의 무역 시 최혜국 지위를 잃으며 새로운 수출시장을 모색하였음. 그 결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국·중국과의 FTA 체결 등 신규시장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경제성장의 돌파구로 활용하였음.
- 이외에도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과 FTA 논의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랍에미리트,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등을 잠정 FTA 논의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음.
- 2023년 6월 훈센 전 총리는 UAE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증진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하며 양국 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음.

## 외채상환태도

### 낮은 연체비율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23년 6월 30일 기준 캄보디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은 70.6백만 달러(단기 53.7백만 달러, 중장기 16.9백만 달러)이며, 이 중 90만 달러의 중장기 채무가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됨. 연체비율은 1.3% 수준으로 금액이 미미하여 외채상환태도 안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23.06)	6등급 (2022.06)
Moody's	B2 (2022.11)	B2 (2021.08)

### Moody's, 캄보디아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Moody's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의 국별신용도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Moody's는 주변 교역국의 성장 둔화로 캄보디아의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특히 캄보디아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EU, 중국의 성장 둔화가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또한 캄보디아에 대한 양허성 자금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나, 그 외의 자금의 조달 전망은 다소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외환보유액의 감소 위험성을 강조하였음.

\* Fitch는 캄보디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캄보디아 경제는 의류 제조, 농업 및 관광업이 중심을 이루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부터 점차 회복 중임. 또한 한국·중국 FTA 체결 등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모색하며 관광 부문의 회복에 힘입어 2023~25년간 5~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EU의 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와 외환보유액의 감소 등 위험이 존재함.
- 훈센 전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CPP)은 야당인 구국당(CNRP)을 해체하고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였으며, 2023년 총선에 앞서 촛불당(CP)의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하였음. 7월에 진행된 제7대 총선에서 CPP는 125석 중 120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장남인 훈마넛으로의 권력 이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
- 그러나 훈마넛이 권력 세습을 위해 정치적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기존 정치인들과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야당 탄압으로 인한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 경제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